



김혜윤이 18일 중국에서 열린 KLPGA 2012 시즌 개막전 현대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3라운드 3번홀에서 아이언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디펜딩 챔프' 김혜윤 또 먹었다

KLPGA 2012 개막전 현대 차이나 레이디스 2년 연속 우승

김하늘·홍란 공동 5위

김혜윤(22·비씨카드)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2 시즌 개막전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김혜윤은 18일 중국 샤먼의 오리엔트 골프(파27·64140야드)에서 열린 현대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바디 2개에 보기 3개를 끓어 10언더파 73타를 기록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대회에 나선 김혜윤은 1라운드부터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를 달성했다.

2라운드까지 5타 차로 여유 있게 선두로 나선 김혜윤은 합계 6언더파 210타로 지난

해에 이어 시즌 개막전 우승컵의 주인공이 되면서 2연패를 장식했다.

평산산(중국)이 마지막 날 2타를 줄이며 김혜윤을 추격했지만 2타 뒤진 2위(합계 4언더파 212타)에 머물렀다.

김혜윤은 전반에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끓어 1타를 줄이며 선두를 질주하다가 13번 홀(파4)에서 위기를 맞았다.

티샷이 밀려 오른쪽 러프로 날아갔고 두 번째 샷도 그린 앞 벙커에 떨어졌다.

벙커샷마저 짧아 그린에 올리지 못한 김혜윤은 결국 1타를 잃고 돌아웃해 파틀룸에 게 4타 차로 퇴了出来.

김혜윤은 18번홀(파4)에서 짧은 파퍼트

를 놓쳐 다시 보기를 적어냈지만 우승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김혜윤은 KLPGA 투어 통산 세 번째 우승컵과 4만50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2011년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혜연은 현대 차이나 오픈 우승으로 2012년 상금과 대상 포인트부문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 앞서게 됐다.

1라운드에서 김혜윤과 공동 선두에 나서며 우승을 노렸던 '2011시즌 3관왕'인 김하늘(23·비씨카드)은 타수를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1언더파 215타로 홍란(25·MUS포츠)과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화·롯데 '짬짤' SK·LG '씁쓸'

프로야구 FA 손익계산

어느 해보다 뜻깊게 달아올랐던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FA를 선언한 17명의 선수 중 김동주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계약사에 사인을 마쳤다.

유달리 '대형 계약'과 '깜짝 이적'이 많았던 올해 FA 시장에서는 한화와 롯데가 가장 짬짤한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한화는 LG에서 풀린 투수 송신영을 데려온 데 이어 일본 생활을 청산한 거포 김태균과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차례로 영입했다.

활활한 4번 타자 김태균으로 타선의 중심을 세우고, 송신영의 가세로 용병 데니 바티스타와 함께 탄탄한 뒷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박찬호가 선발로 토

이션에서 제 뒷을 해 준다면 4강까지도 노려볼 만한 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

롯데도 한화 빼지 않게 FA를 통해 구멍난 자리를 잘 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빅 기어' 이대호를 일본 오릭스로 떠나 보내고 베테랑 불펜투수 임경완까지 놓친 롯데는 SK의 '벌떼 불펜'을 이끌던 이승호와 정대현을 차례로 잡아오는 데 성공했다.

강력한 타선과 탄탄한 선발진을 갖추고도 뒷문이 약해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던 롯데는 계투진이 몇 배로 든든해졌다.

그러나 100억원을 베팅하고 결국 이대호를 놓쳤다는 점에서 타선에서 전력 약화를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한화나 롯데와 반대로 SK와 LG는 올해 FA 시장에서 순회를 본 팀으로 분류된다. 정대현과 이승호를 놓친 SK는 조인성과 임경완을 차례로 데려왔지만 팀 전력

의 핵심인 불펜의 약화를 상쇄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전병우(수술), 고효준(군 입대), 이승호 등 핵심 좌투수들이 빠진 자리는 전혀 메우지 못했다.

LG도 이택근과 송신영, 조인성 등 굵직한 선수들을 한꺼번에 떠나보내 타격이 크다. 이에 외부 FA 영입에 관심을 두지 않은 LG는 보상선수로도 대부분 신인급을 선택해 장기적인 팀 재건에 방점을 찍고 겨울을 보내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이택근을 도로 데려온 넥센도 전력 상승 요인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시아 챔피언' 삼성 역시 1년간 최대 거액을 주고 '라이언킹' 이승엽을 영입하면서 타선에 더욱 무게감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인 두산과 김동주의 마지막 협상이 FA 시장의 마무리를 장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하정은-김민정 銀

BWF 마스터스 파이널

한국 서틀록 여자 복식의 간판 하정은(대교눈높이)-김민정(전북은행) 조가 만리장성에 막혀 2011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슈퍼시리즈 마스터스 파이널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하정은-김민정(세계랭킹 4위) 조는 1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인 왕샤ول라-위양(중국) 조에 0-2(8-21 12-21)로 패했다.

이로써 하정은-김민정 조는 올해 왕사를 리-위양 조와의 맞대결에서 5전 전패를 당해 실력을 차를 절감했다.

한편 전날 열린 남자복식 준결승에서는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 전기) 조가 세계랭킹 7위인 차이뱌오-궈전 등(중국) 조에 0-2(17-21 18-21)로 패했다.

/연합뉴스

광주 배드민턴 프런티어 클럽

장애인생활체육 우수 선정

광주장애인배드민턴 프런티어 클럽이 장애인생활체육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프런티어 클럽은 지난 16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2011 장애인생활체육 우수 운영사례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해 상장과 상금 100만원

을 받았다. <사진>

프런티어 클럽은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운동중인 장애인들이 모여 결성됐으며 투명한 클럽운영과 회원의 단계별 지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광주에는 프런티어클럽외에도 빛고을장애인배드민턴클럽(광산구 우산동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광주하나클럽(전남대체육관), 아이캔클럽(신용초교)등에서 장애인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30분 한국병원앞 6시40분문화예술회
관후문 6시50분 비엔날레주차장입구 7시
※다음카페 : 광주금당 산악회
T.011-629-2678

1월 1일(일)
1월 8일(일)
1월 28일(일)

▲광주한빛산악회 무등산 사서대 탐방 1
월1일(일) 증심사/버스종점 9시30분 ※
다음카페 : 광주한빛산악회
T.010-3131-3580

1월 7일(토)
1월 7일(토)
1월 7일(토)

▲광주금당 산악회 1월7~8일(토~일)제
주도 한라산 눈꽃산행(출발) 진월동(구)
해태마트 앞 6시20분 혼주체육관주차장 6

부 실

광주CC회원권
J01500207
한정애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재출고고
본 회사는 2011년 12월 15일 일시주주총회에
서 자본의 총액 7,000,000,000원을 금70,000,
000원으로 감소하고 1주의 금액에 5,000원 주식
1,386,000주에 대하여 임의무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 주식총수 1,400,000주를 14,000주로 감소
하는 조치를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는 이 조치
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자는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경고합니다.
본 회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일로부터 1년내
에 구주권을 본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전남 광양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5일 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재
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
의 강한값을 설정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는 제
권자는 본 광고 제재일 이월부터 1개월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이 바릅니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동 425-4

대표이사 배 문오

2011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케이원시티</